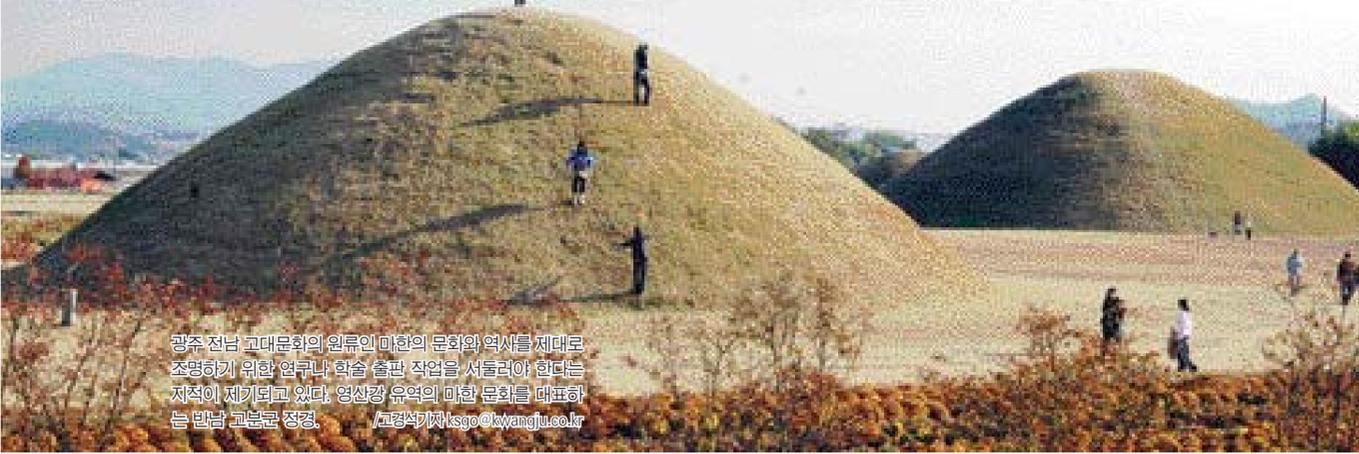


90년째 발굴만... 마한사 정립 급하다



광주 전남 고대문화의 원류인 마한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연구나 학술 출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를 대표하는 단골 고분군 풍경. /고경숙기자 ksgjo@kwangju.co.kr

전남의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영산강 유역 마한(馬韓) 문화권에 대한 발굴이 시작된 지 90년이 됐지만 체계적인 연구나 학술출판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마한사' 조망작업이 사실상 백지상태에 머물고 있다.

나주와 영산강 일대를 포괄하는 마한 문화권은 세계 최초의 복합묘제를 보여주는 다시면복암리 고분군(사적 404호), 금동관(국보 295호)이 출토된 반남면 신촌리 고분군(사적 77호) 등 수많은 유적들이 분포돼 있는 등 호남 고대문화의 '타임캡슐'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난 1917년 일제 학자의 발굴을 시작으로 지역 대학박물관 등이 현재까지 70여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나, 발굴성과를 학문적으로 종합한 서적이 단 한 권도 출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한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마한문화사' 등 90년대 이후 마한사를

영산강 유역 거대 고분군 연구 집대성 안돼 지역 고대사 '암흑'...경북은 '진·변한사' 발간

다문 책들이 출간됐으나 대부분 발굴보고서를 종합한 단편적인 학술보고서 성격이었다.

학술대회도 지난 98년에 열린 '나주지역 고대사회의 성격'을 비롯해 모두 80여차례 진행됐으나, 마한사를 학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연구나 저술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해 이 지역에 대한 발굴·보존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연구인력 등 문제 때문에 마한사에 대한 연구나 출판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는 충남역사연구원에 출판·연구비

를 지원, '백제 문화사대계'(전 15권)라는 저술을 통해 지역 고대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또 백제의 주요 거점인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마한과 함께 삼한으로 분류된 진한과 변한을 학문적으로 조망한 저술도 출간됐다. 경상북도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2002년 진·변한사를 출간했다.

문제는 마한사 정립작업이 미진한 탓에 백제사의 한 부분으로 단편적으로 기술돼 있는 등 마한사가 역사학계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학계에서는 이제라도 전남도가 마한의 역사를 '학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마한의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재정문제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 산하 '영산강연구센터'를 활성화해 마한사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남도가 주체적으로 마한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마한사 연구 문화를 아우르는 개별 연구결과를 집대성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영진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는 "영산강 고대 문화권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마한사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게 현실이다"며 "지역 뿌리찾기 사업지원에서 마한사의 연구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학술진흥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종교칼럼



김정응

겨울 앞에서

문득 겨울 앞에 섰습니다. 잊고 가지던 해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 푸른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중년이 된 모습으로 겨울 속에 비취졌습니다. 소년의 맑음도, 청년의 풋풋함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리 속상할 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가을 속에 비친 모습에 쓸쓸해 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삶일 것이니 말입니다.

몇 해 전, 어느 사회복지기관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세상사의 거칠고 험난한 우여곡절을 모두 새겨놓은 듯 했습니다. 인생사가 얼굴에 그려진다는 통찰을 더욱 명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때 처음으로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 안에는 자신의 인생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흔적과 자취가 담겨있기도 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그린 역사입니다. 때문에 세상사의 우여곡절을 끝로 세진 얼굴을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겨울 앞에 비취진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분들의 얼굴들이 제 얼굴과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제 자신의 모습과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니다. 겨울 앞에서 그 어떤 자기과시도, 자기도취도 참으로 가담치 않는 일이란 생각이 들자 뜨끔할 따름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 속에는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 삶의 문화와 의식의 내면적 본질이 총체적으로 새겨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한 사회의 모든 면이 작용한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겨울 앞에서, 오로지 자신의 얼굴만을 바라보는데 집착하고 심취해 있는 오늘날의 인간 삶의 문화를 거슬러,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얼굴을 자신과 사회의 겨울 속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문화로의 변화를 희망해 봅니다. <신부·광주가톨릭대학 교수>

"다르지만 차별없는 사회를 향해"

개신교 인권주간 기념 예배·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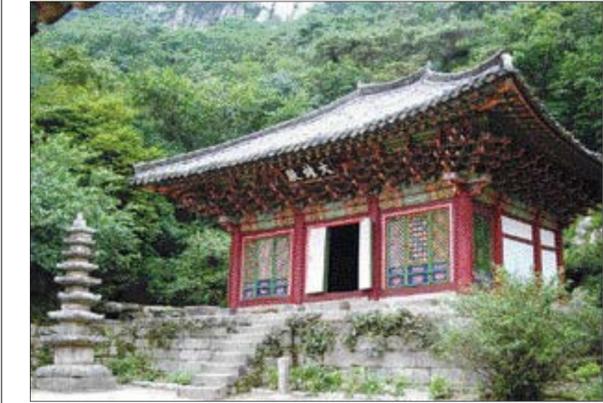
인권주간(12월3~9일)을 맞아 개신교계가 다양한 기념예배와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백제실에서는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예배 및 연합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연합예배에 이어 2부 인권 음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음악회에는 가수 김원중·정용주씨와 동암교회 중창단이 출연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가인권위와 함께 제작한 2007 인권주간 공동예배 자료집 1만5천부를 이미 회원교단과 지역연합회 등에 배포했으며, 오는 9일 "다르지만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해"를 주제로 부천 성은교회

(하원목 목사)에서 공동예배를 갖는다. 광주를 포함한 20여개 지역연합회와 소속 교회들도 같은 주제로 인권주간 예배에 동참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도 5일 인권주간 담화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제도 폐지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빈민과 장애인 등 인권 증진,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증진, 인권 증진할 수 있는 지도자 선출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통합 총회는 9일 서울 불광동 은광교회에서 인권주간 예배를 갖는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개성시 박연리 천마산 기슭의 관음사 대웅전(북한 보물급 제33호). 고려 광종(970년) 때 법인국사(法印國師)가 창건했으며 산사태로 무너져 1646년(인조 24)에 재건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개성 불교유적 성지순례 큰 인기

하루 300명 이달 중순까지 예약 끝

북한으로의 육로 관광이 실시되면서 불교 신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개성시의 관음사를 포함한 개성 인근 불교유적지를 둘러보는 성지순례 코스가 생긴 것.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스님)은 최근 북한 관광 사업주체인 현대아산 측과 '개성지역 성지순례 시범관광 위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일 첫 성지순례 시범관광을 다녀왔다. 당일 코스로 요금은 18만원 선이다.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북한 보물급 33호인 개성 관음사다. 조선시대에 재건된 대웅전을 비롯해 승방, 7층석탑, 관음굴 등이 남아 있다. 관음굴에 있던 대리석관음상은 고려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개성지역 불교성지순례 코스는 크게 3개로 나뉜다. 1코스 '고려·박연반'은 고려박물관-선죽교-민속여관-박연폭포-관음사-개성공단 견학 등으로 이어진다. 현재는 1코스만 운영 중이다. 하루 관광 가능 인원은 300명이며 현재 12월 중순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 2코스 '왕릉반'은 선죽교-고려박물관-민속여관-공민왕릉-왕건릉-개성공단 견학하며, 3코스 '영통반'은 영통사-민속여관-선죽교-고려박물관-개성공단 견학 등이다.

종훈 스님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백두산성지순례사업도 준비 중"이라며 "남북회담과 남북불교 교류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2-3210-1236~7.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DAEWOO DC ELECTRONICS

난방비 절감율 83% 효율 대우냉·난방기

구입비 부담없이 렌탈로 빌려쓰고 절감된 난방비로 무료사용 기대효과

연말기약 "잔스" 새것 빌고 헌것 주기
중고 에어컨, 난방기, 냉·난방기 보상판매기획
빛·한전무상지연금 최고 152만원 해택

조족조족 따져보고 비교해 주십시오

하나. 중고에어컨·난방기·냉·난방기 보상판매 단행	사용하시던 에어컨이나 난방기, 냉·난방기 정상이 보장되며 신제품 구입 및 교체요금 면책은 물론 난방비 절약 효과의 기회
둘. 렌탈로 구입비용없이 사용하고 98.5% 세금혜택까지 가져 가십시오	소유권이 전부 반납에 의한 구입비 부담없는 사용
셋. 장비할부부 부담 없이 구입비 최소	금융부담 없이 현금만 분할상환으로 구입하고 절감된 난방비용으로 대납하는 무료구입 기대효과
넷. 한전무상지연금 최고 152만원 해택	원격제어 냉·난방기 구입시 현금전환의 수요관리사업에 동참하고 투심 자원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난방비 절감율을 비교해 주십시오	공인기관의 성능 시험성적서에 의한 객관적인 절감율을 꼼꼼히 비교 평가해 주십시오
여섯. 완벽한 A/S 조직망에 의한 전국 원불서비스시스템	대우전자서비스의 전국 A/S네트워크에 의한 전문엔지니어의 제품 설치 및 고객만족 사용 서비스

-18°C 초저온에서도 더욱 강해진 Hi-Engine 초강력 파워의 저온형 대우일렉 DC 냉·난방기

프리미엄

DC 인버터 벽걸이형 냉난방기
6, 8, 15, 18, 23, 33, 44, 63, 80, 110형 (업소용, 산업용, 소·중·대형)

천장캐시세트형 냉방·냉방 복합기

•제 조 원: 대우일렉 DC
•설치및 A/S: YES 대우일렉서비스

구입 대우일렉 호남 총판(금호월드 2층 하이네트)
문의 080-350-8822 딜러모집 376-2900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525-0021, 전철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현금투자자 최우선

현금투자자 최우선
1. 향명 유증리 입자 4인방 골포집 무인도면, 펜션 수령할 가능 토지 매매가 3억 3천원
2. 목포 신원향 인근부지 약 3천평 건립대가 4억 2천원(신축건물) 바다가 보이는 건축지용 토지임
3. 전월주세 신축부지 송정동 200평은 길 주가지역 480평 매매가 4억 3000만원 전월주세 토지 즉시 건물 신축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건립대매
1. 북동 롯데백화점건너편 도로변 대지50평 2층건물 매매가 296천(은행대출 2억인도 매매가)
2. 광안대교거리 주유소 옆 건물5층 대지70평 임대용건물 회사사무사 사무실용도 적함, 동원지구 개발 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 임대대지 5000평주인사정상 건립대매
3. 농성동 상영원사소 건물 1200평 임대대지 4800평 대지 1500평 임대대지 18억 건립대매가 12억 임대 걸나가는 건물임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음식점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결혼, 화갑, 칠순,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
10,11,12월 예식, 송년모임 예약접수중